

막내 황희찬, 역시 물건!

20세 불구 '돌파력·파워·스피드' 압권
UAE평가전에서 U-23 3경기만에 데뷔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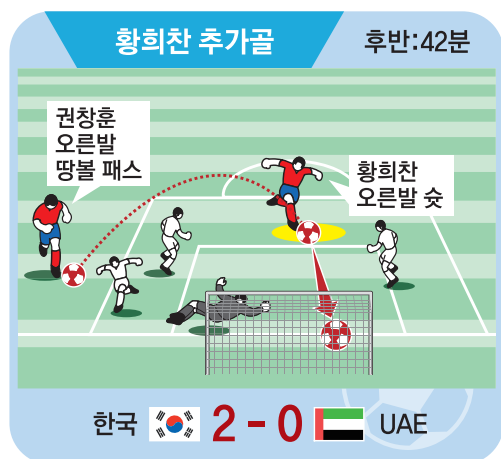


역시 '물건'이었다. 신태용 감독이 핵심 선수로 콕 집은 '더 젊은 피' 황희찬(20·잡츠부르크·사진)이 새해 첫 평가전에서 기분 좋은 골을 터트리며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앞날을 밝혔다.

황희찬은 5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사뱌클럽경기장에서 끝난 올림픽대표팀-UAE의 평가전에서 후반 42분 추가골을 작렬해 2-0 승리를 완성했다. UAE 페널티박스 오른쪽을 파고들던 권창훈(수원)이 찔러준 땅볼 패스를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5분 이영재(울산)의 선제골에 이어 승리를 확정하는 썩기골이었다.

12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앞둔 신태용 감독은 교체선수 제한이 없는 친선경기의 성격을 심본 활용해 다양한 카드를 실험했다. 후반 16분 권창훈, 문창진(포항)과 함께 뒤늦게 출격한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를 맡아 U-23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3경기만에 값진 데뷔골을 신고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은 1993년생이 주축인 이번 대표팀에서 수비수 황기욱(연세대)과 함께 '유이한' 1996년생이다. 지난해 10월 국내서 벌어진 호주와의 2차예 평가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저돌적인 돌파와 날다른 힘, 스피드를 보여주며 신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 감독이 권창훈과 함께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키플레이어로 꼽을 만큼 팀 내 비중이 크다. 3위까지 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주어지는 카타르 U-23챔피언십을 앞두고 '물건' 황희찬에게 스포츠타미트가 쏟아지는 이유다. 올림픽대표팀은 7일 오후 11시 20분 사우디아라비아와 2번째 평가전을 치른 뒤 도하로 이동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프로야구 감독들의 새해 구상 2 LG 양상문 감독

“빠른 야구, 포수 빼고 다 된다”



LG 양상문 감독이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 로고가 새겨진 공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현역시절 좌완투수였던 양 감독이 왼팔로 들어올린 엄지, 양 감독이 가슴 속 바라는 LG의 미래다.

주루플레이, 센스보다 더 중요한 건 의욕
4~5개월 집중 훈련, 경기에서 나올 것
작년 실패했지만 선수층 가능성은 확신
정의윤·이진영 보낸 건 팀을 위한 결정

LG 양상문(55) 감독은 2015시즌을 실패라고 했다. 전제 9위, 사실상 최하위인 팀 성적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그러나 실패 속에 얻은 수확은 분명히 있다. 선수단에서 감지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그것이다. 양 감독이 자신 있게 말하는 ‘달라진 LG’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비단 2016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양 감독은 “난 다른 건 안 본다. ‘팀 LG’만 본다”며 “육 안 먹고 편하게 있다가 그만둘 수 있지만 그렇게 감독을 하려고 지휘봉을 잡은 게 아니다. 내가 떠나도 LG는 10년, 20년 비전(vision) 있는 팀이 됐으면 한다. 선수들이 졸무늬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팬들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죽도록 뛰는 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강팀 LG다”고 강조했다.

●“2015년은 실패! 그러나...”
-2016년이 밝았지만 2015년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2015년을 평가한다면.

“실패한 시즌이다. 시즌 초반부터 뼈격거렸다. 부상 선수들도 많았다. 하지만 평가는 대지 않았다. 부상 또한 훈련강도라든지, 휴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탓이다. 책임져야 한다.”
-사실상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사람과 사람간 문제가 있었고, 야구적으로도 부족한 게 있었다. 나 또한 선택을 잘못했다. 변화라는 게 한순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리더니까 과감하게 결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패를 통해 얻은 부분은 뭔가.
“변명 같아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선수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 팀은 주전 선수가 빠지면 그 자리를 메울 만한 선수가 딱히 없었다. 지금은 주전 선수가 빠져도 공백을 적절히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생겼다.”
-지난 시즌 눈에 띈 선수들은 누구인가.
“개개인 특색 있는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외야진이 탄탄해졌다. 일단 임훈이 오면서 외야수비가 많이 안정됐고, 안익훈도 수비에 감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문선재, 이천웅 등 여러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6년 LG는 빠른 야구를 한다!”
-지난해 팀 타율이 0.269로 9위였다. 공격에서 아쉬움이 컸을 것 같다.

“우리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단,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외부에선 LG의 문제점으로 장타력 부재를 꼽지만, 우리는 멀리치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잠실에선 20홈런 이상 치기가 어렵다. 한 베이스 더 가는 빠른 야구,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득점을 올리는 쪽으로 선수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병규(7번)에게 2루타를 많이 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이)병규는 좋은 타구를 때려낼 줄 아는 타자다. 그런데 장타를 치려고 크게 스윙만 하다가 타율, 타점을 다 놓쳤다. (이)병규에게 ‘2루타만 쳐도 된다. 홈런은 잡실이 아닌 밖에 나가서 치라’고 주문했다.”
-빠른 야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팀에 뭘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한 시즌에 도루 40~50개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내가 말하는 LG의 빠른 야구는 한 베이스를 더 가려는 야구다. 상대팀들이 우리를 만나면 편하게 야구하는 게 눈에 보인다. 1안타면 한 베이스에, 출루해도 뛰는 선수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생각하던 LG 야구에서 탈피해 타자들이 출루하면 기본 2베이스, 그 이상 가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상대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211억 대박 난 ‘응팔’

광고·VOD서비스로만 시리즈 최고 매출
OST 앨범·판권료 등 추가 수익도 클 듯

시청률과 인기는 이미 증명했고, 이제는 그 매출효과까지 역대 ‘응답하라’ 시리즈 가운데 최고다.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팔·사진)이 ‘잘 만든 콘텐츠로 열 명의 부자 부럽지 않은’ 면모를 과시하며 200억원이 넘는 매출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편 광고를 비롯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드라마 OST 앨범 및 음원 수익이 매출을 늘리는 ‘효자종목’이다.

5일 tvN에 따르면 ‘응팔’은 4일 기준으로 광고 판매로만 17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1월 6일 첫 방송한 1회부터 16일 종영하는 20회까지 드라마 방송 전후에 붙는 광고는 물론 중간 광고까지 모두 판매되면서 벌어들이는 액수다.

또한 VOD 서비스를 통해서는 매주 5억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추천해 매출액을 주간 단위로 5억원씩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1회부터 16회까지 8주 동안 방송돼 총 4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아직 드라마 종영까지 2주 분량(4회분)이 더 남아있어, 추가로 10억 원의 매출이 더해질 전망이다.

광고와 VOD서비스만으로 약 211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지만 사실 진짜 수익은 ‘211억+α’ 수준이다. OST앨범과 음원 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현 시점에서 산정할 수 없는 탓에 이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ST앨범은 발매일로부터 3개월 후, 음원은 6개월 후부터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다. ‘응팔’의 OST앨범은 지난해 12월 발매됐으며, 음원은 매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만큼 매출액 산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제작진은 이 외에도 출연 배우들의 광고 출연에 따른 판권료까지 쟁긴다. 김성균·라미란·안재홍·류준열 등이 연달아 출연한 한 통신회사 광고에 드라마 내용을 모티브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판권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응팔’은 달력과 우표, 노트, 엽서 등의 MD상품을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얻는 수익은 CJ 나눔재단에 보내 소외가정을 돕는 연탄기부에 쓸 예정인 만큼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솔이 기자 bsm@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 형일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남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평상시 사이즈 뉴맨 추수 제작

6.50(8)	1호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0(8)	추수 제작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육이나 실리온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든다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이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1588-3346,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리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케이뉴맨
등록번호 제2015-서울서초-1790호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